

NSP

<http://www.eai.or.kr>

Report

National Security Panel

EAI 외교안보센터 :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⑨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동맹 네트워크

국가안보 패널 명단

▶ 위원장

하영선(서울대학교)

▶ 감사위원

전재성(서울대학교)

▶ 위원

김병국(고려대학교)

김성환(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현(중앙대학교)

박정희(서울대학교)

신성호(서울대학교)

이상현(세종연구소)

이태환(세종연구소)

장훈(중앙대학교)

정진영(경희대학교)

정한울(EAI)

한용섭(국방대학원)

▶ 감사

황성준(EAI)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Tel No. 82-2-2277-1683

Fax No. 82-2-2277-1684

<http://www.eai.or.kr>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동맹네트워크

(요약문)

대표집필: 이상현(세종연구소)

한·미 양국은 현재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의 격차를 비롯하여 한국민의 민족주의 성향 증대, 미국의 세계전략 수정에 따른 동맹관 변화 등 한미동맹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이 처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작전계획 5029를 둘러싼 논란은 양국의 시각차를 잘 드러내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FOTA를 대신하여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출범시켜 동맹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지만 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청사진은 아직 상당 부분 미완성이다.

한미동맹의 골간인 주한미군은 현재 본격적인 조정과정을 겪고 있다. 한·미 양국이 최종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의 골자는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차출된 미2여단전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 12,500명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용산 기지 이전과 미 2사단의 오산·평택 이전까지 합의하였다. 이로써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 재조정 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한반도 안보환경은 현재 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안보에 일익을 담당해온 미국의 안보 기여가 과거 그 어

는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과 동맹조정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한미동맹의 최근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안은 아니다. 실상 미국 방부는 냉전이 끝난 직후부터 전 세계적인 미국의 동맹정책과 해외기지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은 9.11 테러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환경에서 변화의 핵심은 안보위협 유형과 종류가 전통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벗어나서 확대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안보위협 주체도 각종 비국가 행위자로 확대되면서 국제관계의 설정과 관리가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요한다는 데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대규모 테러 등 각종 비대칭 위협은 21세기 안보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이며, 전 세계적인 미군의 해외기지 조정과 동맹 네트워크의 재정립은 새로운 군사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냉전기를 통해 미국의 군사전략은 냉전의 최전선에 전진 배치된 대규모의 군대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두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의 군사전략은 거점 위주의 방식보다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네트

워크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첨단군사력 건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군사혁신과 군 변환 연구이다. 군사혁신은 첨단정보기술을 군사력에 응용하여 조직과 교리까지도 바꿈으로써 전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지닌다. 군 변환은 군사혁신을 실제로 적용하여 군대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으로서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산업사회 군사력을 정보화 시대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냉전기 군사태세를 탈냉전기 군사태세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이다.

둘째는 네트워크중심 전쟁(network-centric warfare) 개념이다. 네트워크중심 전쟁은 네트워크 컴퓨팅(network-centric computing)과 마찬가지로 전 지구권을 엮는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하한 플랫폼이라도—전함, 비행기, 육상전투차량, 혹은 심지어 말단 보병에 이르기까지—언제든지 네트워크에 로그인하여 데이터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자유로 구사하게 한다는 개념이다. 무기체계들이 전장공간 내 어느 곳에 위치하든간에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효과 위주의 집중공격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과 수송 소요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전투참여 요원들이 공통으로 보유하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각 플랫폼이 무엇이나 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다.

셋째, 최근의 미 군사교리는 신속결전작전(RDO: Rapid Decisive Oper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신속결전작전에서는 입체성, 통합성, 정확성, 기민성 등이 강조되며, 미래전의 양상이 순차적이 아닌 동시병렬적 공지합동작전으로 치러질 것임을 보여준다. 미 합참 자료에 의하면 신속결전작전은 미래전을 위한 합동작전개념이다. 신속결전작전은 지식, 지휘통제, 효과 기반 작전(effect-based operations)을 결합하여 원하는 정치·군사적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신속결전작전에 의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이 저항할 수 없는 방향과 차원에 걸쳐 비대칭적 공세를 펼쳐 작전의 조건과 템포를 주도하게 된다.

네트워크 중심전쟁 개념과 신속결전작전은 이미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그 위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첨단기술 전쟁만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미래의 전쟁은 첨단전쟁과 재래식 전쟁이 혼재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비록 해·공군력과 정밀무기가 전세의 큰 흐름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종결에는 여전히 소총 든 보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변화된 안보환경과 군사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동맹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새로운 동맹개념의 핵심은 과거와 같이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고정된 지역적 동맹이 아니라 임무에 따른 유연

한 연합과 연합국을 엮는 다차원 네트워크이다. 새로운 동맹개념에 부응하여 미 국방부는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군사안보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이 추구하는 변화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첨단 IT 기술에 기반한 군사혁신과 군 변환으로 나타나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동맹국/기지 정책의 네트워크화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는 미 군사력 변환은 동맹 네트워크, 군사역량, 그리고 글로벌 방위태세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방위태세 재편은 GPR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과 그에 따른 동맹 네트워크 재편이다.

첫째,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은 미군의 해외배치를 새로운 안보환경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냉전기 동안 미국은 적과 대치한 최전선에 요새화된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적을 억지하고 동맹국 방어의 의지를 과시하며 적대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군은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전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의 대규모 영구기지에 덜 의존하는 대신 소규모 시설을 순환하는 배치방식을 따를 것이다.

둘째, 새로운 글로벌 방위태세의 핵심은 반테러 전쟁과 미래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군을 필요한 곳에, 그리고 미군의 주둔에 우호적인 곳에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동맹관계 네트워크

를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창출하고, 과거의 비우호적 국가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과 함께 지속적인 군 변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거 미군은 대규모 군대와 싸울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제 소규모 테러 네트워크와의 싸움처럼 기민한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덩치 크고 둔한 사단보다는 작고 모듈화된 여단, 첨단 통신, 제대간 합동성 및 통합,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더 선호된다. 네트워크중심전쟁과 합동 및 연합작전은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는 21세기 군사안보환경에서 갈수록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대되리라는 것과 미국의 군사전략이 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양상에서 21세기의 군사안보는 국가 대 네트워크의 전쟁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며, 전쟁의 지배적인 양상은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갈수록 전쟁에서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는 한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군사전략에서 네트워크 특징이 드러나는 측면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21세기 제국의 네트워크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또한 해외주둔정책 변화, 동맹국 정책의 변화, 대테러·반확산 연대의 구축 등 초강대국의 압도

적 힘으로도 풀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군사안보전략의 네트워크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자문할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는 왜 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미국은 또 왜 한국과의 동맹을 필요로 하는지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적어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까지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한국의 군사안보역량을 보완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미국의 입장에서조차 점차 가치화되는 중·러의 미국 영향력 확대 견제 움직임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은 미·일 안보협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조차 한미동맹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은 적어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긴밀히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미동맹의 배타성, 특히 중국을 포위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향후 동맹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둘째, 미국 군사안보전략의 세계적 변환을 염두에 둘 때 한미동맹의 과제는 무엇인가? 동맹조정 과도기에 처하여 우리가 유념할 사항은 우선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한·미 양국은 동맹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비록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으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은 소멸되었지만 ‘신뢰의 인계철선’은 유지되어야 하고, 21세기에 제대로 기능하는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 군대가 상호운용성 개념 아래 네

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21세기 군사혁신의 구체적 표현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단순히 자주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한국 군사혁신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걱정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이제는 우리도 한국형 군 변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첨단기술 위주의 군 변환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의 처지에 맞는 군 변환을 추구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넷째, 갈수록 네트워크화하는 국제안보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를 주도해야 하나? 한미동맹이라는 큰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물망을 쳐야 앞으로의 안보환경에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고 평화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주도의 그물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맹강화의 이익이 동맹완화의 위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세계는 국제정치의 힘센 행위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쳐놓은 거미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의 네트워크를 경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이 살아갈 미래 환경은 한국 국내와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얽히고설킨 복합적 그물망의 시대이다. 우선은 미국이 쳐놓은 그물망을 잘 활용하고, 한반도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능력대로 독자적인 그물망을 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는 당분간 점차 가시화되는 중-러의 군사 안보

협력 강화에 미일동맹이 맞서는 구조가 추세이겠지만, 복합적 그물망 시대에 그것을 양자택일의 구조로 규정하여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우리 스스로 남을 엮어매는 거미줄을 칠 능력이 안 된다면 남이 쳐놓은 그물망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한국처럼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국가의 생존을 위한 지혜가 될 것이다. (끝).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동맹네트워크

이상현(세종연구소)

I. 서론: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한·미 양국은 2004년 6월에 미측이 2005년말까지 이라크 지원부대를 포함한 주한미군 12,500명의 감축을 희망한다는 기본구상을 제시한 이후 약 4개월 동안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이 최종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의 골자는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차출된 미2여단전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 12,500명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의 오산·평택 이전까지 합의하였다. 이로써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 재조정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조정은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인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다. GPR에 따르면 전세계 미군 기지는 4단계로 재분류될 예정이다. 1단계는 전력투사거점(PPH: Power Projection Hub)으로 대규모 병력과 장비의 전개 근거지이다. PPH는 해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하와이와 플로리다, 괌 등 미국내 기지로 구성된다. 2단계는 주요 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s)로 초현대식 지휘체계를 갖추고 대규모 병력이 장기 주둔하는 상설기지이다.

MOB는 평소에 미군의 훈련을 지원하며 인근국가와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3단계는 유사시에 대비한 시설은 갖추되 상주병력은 소규모로 한 전방작전거점(FOS: Forward Operating Sites)이며, 마지막으로 4단계는 소규모 연락요원이나 훈련장 시설만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협력적 안보지점(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s)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적용되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구성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와 더불어 한미동맹 자체가 지금과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되고 동맹의 운영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안보환경은 현재 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안보에 일익을 담당해온 미국의 안보 기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과 동맹 조정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한미동맹의 최근 변화는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사안은 아니다. 실상 미국 방부는 냉전이 끝난 직후부터 전세계적인 미국의 동맹정책과 해외기지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은 9.11 테러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세계는 탈-탈냉전(post post-Cold War) 국제질서에 돌입했다고 언급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안보위협 유형과 종류가 전통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벗어나서 확대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안보위협의 주체도 각종 비국가 행위자로 확대되면서 국제관계의 설정과 관리가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요한다는 데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와 대규모 테러 등 각종 비대칭 위협은 21세기 안보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안보위협은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초국가적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초래된 결과이며, 새로운 안보위협은 어느 한 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이슈 영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처하여 21세기의 군사안보 전략은 환경의 변화, 군사기술의 변화, 위협 주체의 변화, 글로벌 차원 세력관계 변화 등 총체적 변화를 전제로 연구되어야 한다.

9.11 이후 국제안보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국가성의 약화이다. 국제 공동체의 입장에서 국가성의 약화는 유토피아의 전주곡이 아니라 재앙의 지름길이다. 저개발 세계의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냉전의 종식을 맞았고, 결국 동유럽과 남아시아에 걸쳐 실패한 국가와 불안한 국가의 띠가 형성되었다. 소위 ‘불안정 호’(arc of instability)이다. 이러한 약한 국가들은 밖으로는 잦은 충돌과 안으로는 인권 유린의 원천으로서 국제질서에 위협을

가해 왔으며, 이제는 선진세계를 공격하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와 연결된 잠재적 훈련소로 부상하고 있다.¹⁾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는 통치 실패로 인해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면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보다 용이한 국제적 움직임과 개방된 국경, 물자와 지식의 이동성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국가단위 중심의 전쟁개념은 약화되는 반면 비국가 행위자의 활동 영역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세계화의 진척은 그 추세에 통합하는 부류와 계속 비통합 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류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비통합 지역, 즉 세계화 시대 국제경제체제 및 국제사회에서 단절된 지역은 국제안보의 위험지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향후 이들 지역의 단절성을 제거하는 것이 국제안보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²⁾

미국은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이며, 전세계적인 미군의 해외기지 조정과 동맹 네트워크의 재정립은 새로운 군사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냉전기를 통해 미국의 군사전략은 냉전의 최전선에 전진배치된 대규모의 군대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두었다. 그러나

1) 프랜시스 후쿠야마, 안진환 역, 『강한 국가의 조건』 (서울: 황금가지, 2005), pp. 168-170.

2) Thomas P. M. Barnett, *The Pentagon's New Map: War and Pe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G. P. Putnam's Sons, 2004), pp. 4-8.

탈냉전기의 군사전략은 거점 위주의 방식보다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 한반도 안보환경은 현재 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그 와중에 주한미군 1/3 감축, 미 2사단 재배치 등 중요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그 일환인 GPR에 의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 탈냉전과 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안보위협 유형과 종류가 전통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벗어나서 확대되고 있다. 안보위협의 주체도 각종 비국가 행위자로 확대되면서 국제관계의 설정과 관리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요하고 있다.
- 세계화의 추세에 통합되지 못한 주변지역은 탈냉전기 국가성의 약화와 더불어 국제안보의 새로운 취약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불안정의 호'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과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지역의 단절성을 극복하는 것이 국제안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미국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거점 위주의 배치 방식에서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한미동맹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II. 새로운 전쟁양상과 군 변환

미국의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첨단군사력 건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군사혁신과 군 변환 연구이다. 군사혁신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감시·정찰(ISR)과 정밀타격무기를 첨단 전투지휘자동화체계(advanced C⁴I)로 연결하면 새로운 하나의 복합체계가 탄생되고, 이들은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수반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군사혁신은 첨단정보기술을 군사력에 응용하여 조직과 교리까지도 바꿈으로써 전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지닌다. 군 변환은 군사혁신을 실제로 적용하여 군대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산업사회 군사력을 정보화시대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첨단 지휘자동화체계인 C⁴ISR, 원거리 정밀타격, 네트워크, 유연성, 파괴력 향상 등 구현에 중점을 둔다. 둘째는 냉전기 군사태세를 탈냉전기 군사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요인인 테러, WMD 확산 등에 대처하여 미군의 군사태세를 바꾸되, 전진배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 위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동맹국관계와 해외주둔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³⁾

3) Carl Conetta, "9/11 and the Meanings of Military Transformation," *Project on Defense Alternatives*, 6 February 2003 (<http://www.comw.org/pda/0302conetta.html>, searched on: November 26, 2003), pp. 5/9-6/9; 군 변환의 의미에 관해서는 미 국방부가 작성한 여러 공식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Transformation Planning Guidance*, April 2003 (http://www.afei.org/transformation/pdf/TransPlanningGuidance_April2003.pdf, searched on: May 7, 2004); *Transformation Study Report*, April 27, 2001 (<http://www.defenselink.mil/news/Jun2001/d20010621transrep.pdf>, searched on: May 11, 2004) 등 참조.

둘째는 네트워크중심 전쟁(network-centric warfare) 개념이다. 네트워크중심 전쟁은 네트워크 컴퓨팅(network-centric computing) 개념과 유사하다. 네트워크 컴퓨팅은 전송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표준화된 패킷으로 나누어 전송함으로써 통신 노드 중 일부가 파괴되더라도 연결 가능한 모든 회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전송율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중심 전쟁은 전 지구를 엮는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하한 플랫폼이라도—전함, 비행기, 육상전투차량, 혹은 심지어 말단 보병에 이르기까지—언제든지 네트워크에 로그인하여 데이터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자유로 구사하게 한다는 개념이다.⁴⁾ 무기체계들이 전장공간 내 어느 곳에 위치하든 간에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효과 위주의 집중공격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과 수송 소요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전투참여 요원들이 공통으로 보유하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각 플랫폼이 무엇이나 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전쟁은 특히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측에 유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⁵⁾

네트워크중심 전쟁은 인지, 정보, 물리적 영역의 우위를 결합하여 전장공간 인식, 축약된 지휘절차, 정밀타격을 가

능케 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우위를 접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군사력을 재조직하고 정비하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는 군대로 바꾸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밀타격은 네트워크중심 전쟁의 핵심이다. 정밀타격은 장거리 폭격기와 미사일이 동원된다는 면에서 전략폭격(strategic bombing)과 유사한 일면이 있다. 전략폭격은 핵심 목표를 타격하여 적의 저항의지와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에 비해 정밀타격은 말 그대로 ‘한방에 하나의 목표물을 파괴하는(one bomb destroys one target)’ 것이 핵심이다. 전략폭격을 가능하게 한 기술인 장거리 전폭기와 미사일은 산업사회의 기술에 속한다. 반면 정밀타격은 목표 탐지와 유도장치 등 정보사회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밀타격으로 이제 목표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언제 어디서든 파괴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⁶⁾

더 나아가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국방부문에 적용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혹은 유비쿼터스 사회 등의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정보화는 언제 어디서든지 통신이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정보네트워크에 연결시킬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이다. 유비쿼터스는 사용자가 장소(anywhere)나 시간(anytime), 그리고 장

4) Bruce Berkowitz, *The New Face of War: How War Will Fought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The Free Press, 2003), p. 113.

5) 노 훈·손태중, “NCW: 선진국 동향과 우리 군의 과제,” 『주간국방논단』 제1046호(2005.5.9).

6) Berkowitz, *The New Face of War*, pp. 76-77.

치(any device)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3A'로 불리기도 한다.

유비쿼터스 개념을 국방부문에 응용하는 예로서는, 첫째, 착용식(wearable) 컴퓨터를 들 수 있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미국 MIT에서 1960년대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컴퓨터의 새로운 형태로서 기존의 책상 위(데스크탑)에 놓여 있던 컴퓨터를 몸에 착용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래 전장에서 디지털화된 전투원들이 몸에 착용하여 전장에서 실시간에 지휘통제체계에 의해 전투를 수행하는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스마트웨어(smart wear)로서, IT, BT, NT 등 신기술을 결합해 전통적 섬유나 의복의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의류를 말한다. 고기능성 섬유 소재의 의복에 디지털 센서나 위치확인 시스템, 초소형 통신기와 소형 MP3 플레이어 등을 내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셋째, 스마트 먼지(smart dust)는 1 입방 밀리미터(mm³) 크기의 실리콘 모트(silicon mote)라는 입방체 안에 완전히 자율적인 센싱(autonomous sensing)과 통신 플랫폼 능력을 갖춘 보이지 않는 컴퓨팅 시스템으로 마치 먼지처럼 가벼워 떠다닐 수 있다. 스마트 먼지는 전장의 기상상태, 생화학적 오염 여부, 병력과 장비의 이동 등을 감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웨이(smart way)는 도로라는 물리공간에 센서와 같은 전자공간을 이식하고 사람과 도로가 접속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

는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요 전술 이동로나 핵심 군사시설 진입로 등에 첨단센서를 촘촘히 심어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하면 한낱 아스팔트 조각에 불과하던 도로가 유비쿼터스 기술을 구현하는 첨단 매체로 변신할 수 있다.⁷⁾

셋째, 최근의 미 군사교리는 신속결전작전(RDO: Rapid Decisive Oper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신속결전작전에서는 입체성, 통합성, 정확성, 기민성 등이 강조되며, 미래전의 양상이 순차적이 아닌 동시병렬적 공지합동작전으로 치러질 것임을 보여준다. 미 합참 자료에 의하면 신속결전작전은 미래전을 위한 합동작전개념이다. 신속결전작전은 지식, 지휘통제, 효과 기반 작전(effect-based operations)을 결합하여 원하는 정치·군사적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신속결전작전에 의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이 저항할 수 없는 방향과 차원에 걸쳐 비대칭적 공세를 펼쳐 작전의 조건과 템포를 주도하게 된다.⁸⁾

네트워크 중심전쟁 개념과 신속결전작전은 이미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그 위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1991년 걸프전 양상과 이 두 전쟁을 비교해 볼 경우 전쟁수행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전쟁의 특징은 토미 프랭크스 중부군 사령관이 무인항공기 프레데터가 보내는 실시간 동영상을 미국 플로리다에 앉아 받아보면서 지휘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은

7) 정구돈·손태중, "유비쿼터스 패러다임과 국방부문 적용 방안," 『주간국방논단』 제953호(2003-7-28) 참조.

8) U.S. Joint Forces Command, *A Concept for Rapid Decisive Operations*, RDO Whitepaper Version 2.0 (2001) 참조.

미래지향적인 첨단무기의 시연장과도 같았다. 아프간 전쟁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한 것은 1995년 발칸 전쟁 때 첫선을 보인 무인정찰기 프레데터(Predator)로서, 이 무인항공기는 1.6km 고도에서 TV와 적외선, 전자, 광학 카메라를 통해 지상의 사람 얼굴을 식별할 만큼 정확한 영상을 전송한다. 이러한 첨단기술 덕분에 미국의 전쟁 지도부는 플로리다에 앉아서 전쟁의 경과를 손바닥처럼 볼 수 있었고 미군 병사들이 추락한 헬기에서 하나씩 끌려나와 적에게 사살당하는 장면까지도 지켜보아야 했다. 아프간 전쟁의 양상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야전 사령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가기 위해 애로를 겪었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 양상은 정보화 시대 전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첨단기술 전쟁만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미래의 전쟁은 첨단전쟁과 재래식 전쟁이 혼재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비록 해·공군력과 정밀무기가 전세의 큰 흐름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종결에는 여전히 소총 든 보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전쟁 개념과 신속결전 작전의 위력은 이미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검증받은 바 있지만, 전쟁종결과 전후 처리에는 첨단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교훈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갈수록 첨단화되는 것이 추세이지만, 다른 한편 재래식 군사력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전쟁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다.

■ 새로운 전쟁양상은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사혁신과 군 변환에서 잘 드러난다. 군사혁신은 첨단정보기술을 군사력에 응용하여 조직과 교리까지도 바꿈으로써 전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지닌다. 군 변환은 군사혁신을 실제로 적용하여 군대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으로서 산업사회 군사력을 정보화 시대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냉전기 군사태세를 탈냉전기 군사태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네트워크중심 전쟁은 전 지구를 엮는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하한 플랫폼이라도-전함, 비행기, 육상전투차량, 혹은 심지어 말단 보병에 이르기까지-언제든지 네트워크에 로그인하여 전장공간인식과 지휘통제를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그렇게 되면 각 플랫폼이 무엇이냐 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 신속결전작전에서는 입체성, 통합성, 정확성, 기민성 등이 강조되며, 미래전의 양상이 순차적이 아닌 동시병렬적 공지합동작전으로 치러질 것임을 보여준다. 미 합참 자료에 의하면 신속결전작전은 미래전을 위한 합동작전개념이다. 신속결전작전에 의해 미국과 동맹 국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이 저항할 수 없는 방향과 차원에 걸쳐 비대칭적 공세를 펼쳐 작전의 조건과 템포를 주도하게 된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첨단기술 전쟁만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미래의 전쟁은 첨단전쟁과 재래식 전쟁이 혼재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은 갈수록 첨단화되는 것이 추세이지만, 다른 한편 재래식 군사력도 여전히 필요하다.

III. 미 군사전략의 변화와 동맹의 네트워크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은 새로운 동맹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새로운 동맹개념의 핵심은 과거와 같이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한 고정된 지역적 동맹이 아니라 임무에 따른 유연한 연합과 연합국을 엮는 다차원 네트워크이다. 새로운 동맹개념에 부응하여 미 국방부는 군 변환과 능력위주계획(CBP: capabilities-based planning)을 핵심 원리로 채택하고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군사안보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이 추구하는 변화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첨단 IT 기술에 기반한 군사혁신과 군 변환으로 나타나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동맹국/기지 정책의 네트워크화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제국의 군사원리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양상에 기반을 두면서 단순히 군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동맹정책과 해외기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특징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논의한 첨단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논의들은 비록 강조점은 다르지만 21세기 전쟁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점점 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리라는데 전문가들의 예측이 일치한다.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도달하는 결론은 현대 전쟁에서 정보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쟁의 양상은 점점 더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다. 미 랜드연구소의 아키야와 론펠트(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전쟁수행 양상이 몇 가지 단계를 밟아 변화해왔다고 지적하는데, 그 양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전쟁 수행 단위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교환되고 소통되는 방식이다.

첫째, 가장 초보적인 군사력 운용의 형태는 혼전(melée)으로, 지휘 통제가 거의 전무하고 체계적 조직이나 정보의 흐름이 미미한 수준이다. 혼전은 전쟁수행의 가장 원시적 형태로서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전투참여자들 간에 정보가 전달되는 수단이 고향을 지르거나 수신호를 보내는 정도 외에는 불가능한 형태이다.

둘째 단계는 집단전(massing)으로서, 기하학적 진영이나 포진 형태를 갖추고 전후방이 분명히 구분되는 수준의 전쟁수행 방식이다. 화력이나 전투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전략과 전술의 개념이 도입되고, 하부지휘관들에게 실시간 명령을 하달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신호체계가 고안되었다. 예를 들면 거울로 빛을 반사한다든지 깃발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현대적인 무전 통신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호체계가 집단으로 뒤엉켜 진행되는 전투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단계는 기동전(manuever warfare)으로서 대규모, 다수의 전투단위들을 신속하고 동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자통신 장비들이 동원되는 형태이다. 전격전(blitzkrieg)처럼 지상군과 공군이 기계화된 군사력과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단계가 기동전에 해당하는

다. 기동전 단계에 이르면 다양한 전투 단위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중요해진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벌떼전 (swarming)으로서 아직 가설적이긴 하지만 정보혁명으로 인해 비로소 가능해진 형태의 전쟁 수행방식이다. 스웜밍은 다수—흔히 다섯 혹은 그 이상—의 독립적 혹은 준독립적인 전투단위들이 일정한 형태 없이 분산되어 포진하다가 일단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전방향에서 일제히 목표물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스웜밍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전투 단위들 간의 고도의 연결성으로서, 이는 일종의 네트워크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 네트워크를 가능케 해주는 것은 모든 행위자를 일거에 엮어주는 전체널(all-channel) 네트워크이다.⁹⁾

좀 더 크게 보면 최상위의 네트워크는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로서 목적과 가치관이 다른 국가들 간의 목표지향적 연합 형성이라 할 수 있다. 동맹이 아니라 연합이 국가간 보편적 네트워크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은 이미 냉전 이후의 상황에서 단초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국가간 연합이 가능하려면 상호운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호운용성이란 간단히 말해 다양한 조직 혹은 개인들이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합동작전이 가능한 정도를 지칭한다. 지휘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운용성은 표준화, 통합, 협력 및 시너지를 함축하는 좋은 개념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호운용성은

전략(strategic), 운용(operational), 전술(tactical), 기술적(technical)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전략적 차원에서 상호운용성은 동맹이나 연합군 형성 같은 가장 포괄적 의미에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전략적 차원에서의 상호운용성은 아군과 연합군 간에 세계관, 전략, 교리 및 전력구조를 조화시키는 문제에 집중된다. 운용 및 전술 차원의 상호운용성은 실제 전쟁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리한 전장환경 조성, 위기 대응, 연합작전 등을 조율하여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상호운용성 핵심은 실제 전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대체성 혹은 상호교환성이다. 즉 연합군으로부터 가용한 자원과 제약 내에서 최대의 효율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상호운용이 가능한 지휘체제, 표준화된 통신 및 컴퓨터 데이터 네트워크, 정보·감시·정찰(ISR) 체제 등을 통합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의 상호운용성은 연합군이 사용하는 시스템간의 호환을 가능케 해주는 인터페이스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이다.¹⁰⁾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는 미 군사력 변환은 동맹 네트워크, 군사역량, 그리고 글로벌 방위태세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방위태세 재편은 GPR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네트워크 재편과 이에 따른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이다.

9)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 *Swarming and the Future of Conflict* (Santa Monica, CA: RAND, 2000); Sean J. A. Edwards, *Swarming on the Battlefield* (Santa Monica, CA: RAND, 2000)

10) Myron Hura, and others, *Interoperability: A Continuing Challenge in Coalition Air Operations* (Santa Monica, CA: RAND, 2000), pp. 7-15.

첫째,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은 미군의 해외배치를 새로운 안보환경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냉전기 동안 미국은 적과 대치한 최전선에 요새화된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적을 억지하고 동맹국 방어의 의지를 과시하며 적대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1990년대를 통해 미국의 주력부대는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서유럽과 동북아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 주력부대는 냉전의 최전선에 배치되어 배치된 장소에서 싸울 것을 전제로 주둔하는 부대였다. 그러나 오늘날 미군이 배치된 장소에서 싸울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국방전략 하에서는 미군의 해외 주둔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는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지금 미군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군은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전개가 가능해야 하고 숫자보다는 능력에 기반한 우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미군은 해외의 대규모 영구기지에 덜 의존하는 대신 소규모 시설을 순환하는 배치방식을 따를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방위태세의 핵심은 반테러 전쟁과 미래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군을 필요한 곳에, 그리고 미군의 주둔에 우호적인 곳에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동맹관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창출하고, 과거의 비우호적 국가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융통성이 필요하다.¹¹⁾

특히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방위태세가 중점을 두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둘째, 군사력을 한 곳에 과도하게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성과 기민성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군사력 배치에 중점을 두므로써 글로벌 차원의 군사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넷째, 미 군사력이 현재 있는 곳에서 싸우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신속기동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섯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나 병력의 수보다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방위태세를 정비한다.¹²⁾

새로운 국방태세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다섯 가지 분야에서 동시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계, 활동, 시설, 법적 조치, 그리고 안보소요의 글로벌 소싱이다. 특히 새로운 안보협력관계의 창출은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갖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관계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현재 진행 중인 GPR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네트워크화의 표현으로서 이는 곧 새로운 전략적 공동이익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엮는 새로운 그물망 작업인 것이다.

둘째,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과 함께 지속적인 군 변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거 미군은 대규모 군대와 싸울 목적

11) U.S. Department of Defense, *Facing the Future: Meeting the Threats and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February 2005 (http://www.defenselink.mil/pubs/facing_the_future/facing_the_future_cOL.pdf, 2005-5-14), pp. 65-67.

12)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5, p. 18.

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제 소규모 테러 네트워크와의 싸움처럼 기민한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덩치 크고 둔한 사단보다는 작고 모듈화된 여단, 첨단 통신, 제대간 합동성 및 통합,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더 선호된다. 네트워크중심전쟁과 합동 및 연합작전은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서 필수적이다. 미군은 지휘체통의 어느 수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통합되어야 한다.

동맹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입장은 미국식 전쟁방식(American Way of War)에 관한 논의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이 치른 몇 개의 주요 전쟁들—파나마(1989), 사막의 폭풍(1990), 소말리아(1992), 아이티(1993), 보스니아(1995), 사막의 여우(1998), 코소보(1989), 아프간(2001), 이라크(2003)—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미국의 군사작전은 압도적으로 합동작전(joint and combined)이다. 파나마 사태가 육군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미국의 군사작전은 압도적 무력을 동원한 육·해·공 합동작전이다. 둘째, 냉전 이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군력을 동원한 타격으로 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공군력 사용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부수적 손실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셋째, 주요 지상 전투단계는 과거에 비해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이다. 지상 작전이 가장 길었던 코소보의 경우도 78일에 불과하다. 반면 주요 전투 행위 종료 이후 평화유지는 더욱 길고

어려워지고 있다. 넷째, 공군력만으로 전쟁을 종결짓기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경험은 비록 공군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쟁은 결국 지상군이나 외교에 의해 종결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다섯째, 전쟁 자체보다는 전후처리가 갈수록 어려운 임무가 되고 있다. 이라크, 보스니아·코소보, 아프간 전쟁 등은 전후처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¹³⁾

이러한 미국적 전쟁방식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다. 첫째는 기술적 우위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기술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의 강조는 구소련과의 양적 경쟁을 기술력으로 보완하려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군사전략 사고에서 하나의 금과옥조처럼 신봉되고 있다. 둘째는 제공권의 중요성이다. 우세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은 기술적 우위 추구의 자연스런 발로이며 먼 거리까지 신속한 전력투사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셋째는 최정예 군대의 중요성이다.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미국 군사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넷째는 공중·해상·우주 등 전략적 공유지의 지배이다. 이는 미국 군사전략에서 강조되는 우월한 기동을 보장하고 전차원 지배를 위해 필수적이다. 다섯째, 정밀타격력을 강조한다. 정밀타격력은 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기술발달과 함께 정밀타격력은 크게 향상되어 부수적 피해를

13) H. H. Gaffney, "The American Way of War through 2020,"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20 Project Workshop, "Changing Nature of Warfare" (25 May 2004), pp. 1-3.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섯째, 모든 군사력과 능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합동성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군사력의 집중과 통제가 증진된다.¹⁴⁾

미 국방부가 공개한 새 국방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능력위주계획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능력위주계획은 적의 능력에 대비하여 필요한 역량에 우선적으로 국방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국방 전략 계획은 미국이 대비해야 할 네 가지 위협요소를 i) 테러리즘, 반란, 내전, '무제한전' 등 비정규적 위협, ii) 재래식 지상, 공군, 해군력 및 핵전력을 사용한 전통적 위협, iii) 미 본토 미사일 공격, 국가로부터 비국가 행위자로의 WMD 확산, 동맹국에 대한 WMD 공격 등을 포함하는 대재앙적 위협, 그리고 iv) 센서, 정보전, 사이버전, 극소형 무기, 우주전,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을 동반한 파괴적 위협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중 가장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취약점을 지니는 것은 바로 테러집단과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가해오는 대재앙의 경우로서 제국의 네트워크 없이는 대비에 어려움이 크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복합적 위협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전통적 위협이면서 비정규적 위협을 야기한다. 북한은 전통적, 비정규적, 대재앙적 위협 모두에 해당한다.¹⁵⁾

이러한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는 21세기 군사안보환경에서 갈수록 네트

워크의 중요성이 증대되리라는 것과 미국의 군사전략이 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양상에서 21세기의 군사안보는 국가 대 네트워크의 전쟁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며, 전쟁의 지배적인 양상은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갈수록 전쟁에서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는 여전히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이끌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등 하드파워에서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면에서도 동급의 경쟁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을 새로운 성격의 제국으로 보는 많은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혁명, 탈냉전, 9.11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등 제반 여건은 미국이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미국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완수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를 띠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제국 운영의 원리로서 우호적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안보적 함의를 지닌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한미동맹은 이제 본격적인 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능력위주로 변하고 있는 반면 한반도는 여전히 위협위주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적 흐름과

14) 앞의 글, p. 11.

15)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5 (<http://www.defenselink.mil/news/Mar2005/d20050318nds1.pdf>), p. 2.

한반도 상황을 아우르는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이 추구하는 변화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첨단 IT 기술에 기반한 군사혁신과 군 변환으로 나타나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동맹국/기지 정책의 네트워크화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제국의 군사원리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양상에 기반을 두면서 단순히 군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동맹정책과 해외기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특징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동맹개념의 핵심은 과거와 같이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고정된 지역적 동맹이 아니라 임무에 따른 유연한 연합과 연합국을 엮는 다차원 네트워크이다. 미국은 새로운 동맹개념에 부응하여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군사안보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은 미군의 해외배치를 새로운 안보환경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냉전기 동안 미국은 적과 대치한 최전선에 요새화된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적을 억지하고 동맹국 방어 의지를 과시하며 적대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미군이 배치된 장소에서 싸울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그 결과 새로운 국방전략 하에서 미군의 해외주둔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는 것이다.
- 새로운 글로벌 방위태세의 핵심은 반테러 전쟁과 미래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군을 필요한 곳에, 그리고 미군의 주둔에 우호적

인 곳에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동맹관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창출하고, 과거의 비우호적 국가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 미국은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과 함께 지속적인 군 변환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과거 미군은 대규모 군대와 싸움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제 소규모 테러 네트워크와의 싸움처럼 기민한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덩치 크고 둔한 사단보다는 작고 모듈화된 여단, 첨단 통신, 제대간 합동성 및 통합,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더 선호된다.

IV. 한국의 군사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는 한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며, 그 핵심은 네트워크 중심의 군사안보전략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군사전략에서 네트워크 특징이 드러나는 측면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21세기 제국의 네트워크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또한 해외주둔정책 변화, 동맹국 정책의 변화, 대테러·반확산 연대의 구축 등 초강대국의 압도적 힘으로도 풀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군사안보전략의 네트워크화를 모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2사단을 미래형 사단인 UEx로 개편을 완료한 것으로 알

제 있다. 미 2사단 개편의 핵심은 지상 부대 중 제1여단을 중무장 전투여단(HBCT: Heavy Brigade Combat Team)으로 재편하고 항공부대로는 해체되는 항공여단 부대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다기능 항공여단(MFAB: Multi-Functional Aviation Brigade)을 창설하는 것이다.¹⁶⁾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포병, 전차 부대는 각각 2개 대대에서 1개 대대씩으로 줄었다. 아파치 대대도 3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북한군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는 에이브럼스 전차, 아파치 헬기 부대가 미 지상군의 핵심으로 유지되고 중무장전투여단엔 전차, 기계화 보병, 포병, 정보 부대가 모두 통합되면서 이 여단이 기존 사단급 작전을 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70여 대에서 48대 안팎으로 줄어드는 아파치 헬기도 모두 신형(아파치 롱보)으로 교체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 8군은 제8인사행정사령부와 제17항공여단의 해체로 슬림화되었다.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은 오산·평택과 부산·대구의 두 거점을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항구와 비행장을 끼고 있어 한반도 진출입에 유리하다. 이는 곧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원활한 이동을 상징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¹⁷⁾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자문할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는 왜 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미국은 또 왜 한국과의 동맹

을 필요로 하는지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적어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까지는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한 건전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유사시 한국의 군사안보역량을 보완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미국의 입장에서조차 점차 가시화되는 중·러의 미국 영향력 확대 견제 움직임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은 미·일 안보협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네트워크의 재편만으로는 견제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조차 한미동맹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은 적어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긴밀히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일 공조가 주변국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즉, 동맹강화의 부작용으로서 양자 동맹의 배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한미동맹의 체제를 유지하되 한미동맹의 배타성, 특히 중국을 포위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향후 동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미국 군사안보전략의 세계적 변환을 염두에 둘 때 한미동맹의 과제는 무엇인가? 한미 양국은 최근까지 실무논의를 거쳐 주한미군 12,500명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이전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동맹조정 의 과도기에 처하여 우리가 유념할 사항은 우선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16) 미 8군 보도자료, “미 8군 변환계획(재배치) 예정대로 진행,” 미 8군 공보관실(<http://8tharmy.korea.army.mil>) 2005년 6월 27일.

17) “주한미군 2사단 미래형 사단 개편... ‘몸집’ 줄였지만 전력은 그대로,” 『중앙일보』, 2005년 7월 6일.

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자주국방력 강화를 추진할 경우 대북 억지력 및 우위 유지, 주한미군과의 상호운용성 제고, 장기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비한 독자적 작전능력 제고 등이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맹차원의 상호운용성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군의 상호운용성을 전제하지 않는 협력이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두 나라의 무기체계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호환되지 않거나 부품규격이 다르다면 연합방위체계의 연합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전략적 가치와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동맹의 정신은 유지되기 어렵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한·미 양국의 전략적 가치와 공동이익이라는 상위 차원의 상호운용성은 물론 운용, 전술, 기술적 차원의 상호운용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한·미 양국은 동맹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비록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으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은 소멸되었지만 '신뢰의 인계철선'은 유지되어야 하고, 21세기에 제대로 기능하는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 군대가 상호운용성 개념 아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전은 네트워크전이고, 군사력은 갈수록 고정자산으로서보다는 유동자산으로서의 가치와 효용이 증대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안보를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한미동맹의 요구를 수용하되 어떻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미국의 21세기 군사혁신의 구체적 표현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단순히 자주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한국 군사혁신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21세기 군사전략 기본개념은 우월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어느 곳의 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신속 투사 전력 보유, 적의 도발 의도를 단념시키고 격퇴를 확신시킬 수 있는 전 차원의 압도적 군사능력 보유가 특징이다. 그 일환으로 중무장한 해외주둔 지상군의 규모는 감축하는 대신 해·공군력 강화 및 첨단무기 배치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둔국의 정치, 사회적 여건이 지상군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주둔국의 반미감정을 무릅쓰고 군이 지상군을 무리하게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걱정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단순한 자주국방론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발등의 불로 현실화되면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지휘자동화 체제 등 정보화 시대 첨단 군사력으로의 변모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1세기 한국의 군사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군 정보자산 확충 및 정보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군 정보는 90% 이상 미군의 정보자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24시간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는 미국의 정찰위성과 최고 8,000피트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U-2기 등 각종 첨단 정보수집 항공기들과 각종 지상장비로

부터 정보를 받은 한국전투작전정보본부(Korean Combat Operations Intelligence Center, KCOIC), 연합분석통제본부(Combined Analysis Control Center, CACC)에서는 세계 최첨단 분석장비를 통해 실시간 북한군의 움직임을 분석 파악하고 있다.¹⁸⁾ 한반도는 좁은 지역에 높은 인구 집적, 고도의 산업화 등으로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어느 쪽이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위해서는 평소 북한 군사력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볼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의 기습 의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만일 억지가 실패하더라도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으면 경고 시간을 현저히 앞당김으로써 기습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21세기 한국의 군사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군 정보자산 확충 및 정보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기반위에 구시대의 자주국방론을 넘어 선 21세기 안보협력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우리 군의 경우 1999년부터 운용에 들어간 전략제대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나 현재 구축 중인 육·해·공 각군의 전술 C4I 체계, 그리고 이들 체계를 다시 개선하여 연동하고자 하는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그리고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전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감시체계(ISR), 타격체계(PGM), 지휘통제체계(C4I) 간의 상호연동, 특히 영상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형의 정보교환은 아직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군도 네트워크중심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NCW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수준은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투발전의 다양한 활동은 차치하고 기초적인 수단조차 미흡한 상황이다.¹⁹⁾

이제는 우리도 한국형 군 변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형 군 변환은 물론 미국식 군 변환과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같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처한 위협과 전략적 이익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첨단기술 위주의 군 변환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실상 미국식 군 변환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미국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의 처지에 맞는 군 변환을 추구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한국형 군 변환을 시도하려면 우선 국방예산의 적절한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군편제의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국방소요에 적합한 한국형 군 변환의 요소를 일선부대에서부터 최고위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파악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갈수록 네트워크화하는 국제안

18)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4), pp. 52-53.

19) 노 훈·손태홍, “NCW: 선진국 동향과 우리 군의 과제,” p. 5.

보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를 주도해야 하나? 한미동맹이라는 큰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물망을 쳐야 앞으로의 안보환경에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고 평화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도 우리가 속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크게 보면 동아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그물망 속에 들어와 있다. 문제는 세계의 안보환경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의 군사전략이 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한국은 여전히 자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이미 있던 동맹으로부터도 스스로 거리를 두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 주도의 그물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한미동맹을 강화할 경우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은 ‘미국은 언제라도 한국을 도와야 하지만 한국은 미국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호혜, 평등을 주장하는 우리 스스로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연루의 위험은 동맹관계의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동맹의 이익이 있으면 대가도 따르는 법이다. 한미동맹 강화에는 분명히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맹 완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유연성 문

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이 주변 국가들(특히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략적 유연성을 주한미군의 유입(flow-in)은 되지만 유출(flow-out)은 안 된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본 결과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국제정치적 힘센 행위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쳐놓은 거미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국운이 달라지고 국력이 달라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경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이 살아갈 미래환경은 한국 국내와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얽히고설킨 복합적 그물망의 시대이다. 우선은 미국이 쳐놓은 그물망을 잘 활용하고, 한반도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독자적인 그물망을 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는 당분간 점차 가시화되는 중-러의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미일동맹이 맞서는 구조가 추세이겠지만, 복합적 그물망 시대에 그것을 양자택일의 구조로 규정하여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우리 스스로 남을 엮어매는 거미줄을 칠 능력이 안 된다면 남이 쳐놓은 그물망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한국처럼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국가의 생존을 위한 지혜가 될 것이다.

■ 한미동맹은 유사시 한국의 군사안보역량을 보완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점차 가시화되는 중-러의 미국 영향력 확대 견제 움직임을 감

안할 때 한미동맹은 미·일 안보협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체제를 유지하되 한미동맹의 배타성, 특히 중국을 포위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향후 동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사혁신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메시지이다. 단순한 자주국방론을 넘어 정보화 시대 첨단 군사력으로의 변모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 미국 군사안보전략의 세계적 변환을 염두에 둘 때 한미동맹의 과제는 무엇인지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한미동맹이 21세기에 제대로 기능하는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 군대가 상호운용성 개념 아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안보를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한미동맹의 요구를 수용하되 어떻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갈수록 네트워크화하는 국제안보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를 주도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경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합적 그물망의 시대를 맞아 우선은 미국이 쳐놓은 그물망을 잘 활용하고, 한반도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독자적인 그물망을 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미국의 21세기 군사혁신의 구체적 표현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단순히 자주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한국 군

(최종: 2005. 10.04)

“EAI 국가안보패널 NSP 보고서 시리즈 소개”

- ①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전재성 2004. 6. 17)
- ②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김성한 2004. 8. 4)
- ③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전략개념 (한용섭 2004. 9. 24)
- ④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전재성 2004. 10. 22)
- ⑤ 2004 미국대선과 한반도 (장 훈 2004. 11. 1)
- ⑥ 북한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신성호 2005. 1. 26)
- ⑦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박철휘 2005. 3. 22)
- ⑧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태환 2005. 5. 25)
- ⑨ 정보화시대의 군사제국: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네트워크
(이상현 2005. 10. 04))
- ⑩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FTA 전략 (정진영 근간)

국가안보패널보고서 9호 부/록/목/록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동맹네트워크"

<부록1> 미 군사변환 관련 미 당국자 Remarks, 공식 Reports, Web 자료 모음
: URL 주소 목록

<부록2> “미국의 네트워크 전략” 링크 자료실

FACING THE FUTURE: MEETING THE THREATS AND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Highlights of the Priorities, Initiatives, and Accomplishments of the U.S.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ublic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2001–2004
February 2005
http://www.defenselink.mil/pubs/facing_the_future/facing_the_future_cOL.pd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Department of Defense
March 2005
<http://www.defenselink.mil/news/Mar2005/d20050318nds2.pdf>

Elements of Defense Transformation
US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2004
http://www.oft.osd.mil/library/library_files/document_383_ElementsOfTransformation_LR.pdf#search='elements%20of%20defense%20transformation'

The Implementation of Network-centric Warfare
US Department of Defense
January 2005
http://www.oft.osd.mil/library/library_files/document_387_NCW_Book_LowRes.pdf#search='implementation%20of%20networkcentric%20warfare'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Department of Defense
2004
<http://www.defenselink.mil/news/Mar2005/d20050318nms.pdf#search='national%20military%20strategy%20of%20the%20United%20States%20of%20America'>